

# 新羅服飾과 위구르服飾의 關係 研究

대전실전 의상학과

강사 한 운 속

## 目 次

I. 序 論	3. 女子服飾
II. 위구르 帝國의 歷史·文化的 배경	4. 裝身具
III. 新羅服飾과 위구르服飾의 關係 比較	IV. 結 論
1. 冠帽	참고문헌
2. 男子服飾	ABSTRACT

## I. 序 論

中央아시아는 歷史적으로 複合文化的 성격을 갖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多數의 遊牧民으로 구성된 中央아시아 종족 중, 스텝의 요충지에 자리한 투르크계 위구르는 처음에 몽고고원을 차지하였다가 뒤에 中央아시아로 옮겨 활약하였다. 先行研究에 따르면 위구르는 고유 문자를 갖고 있었고 東西의 文化를 수용함으로써 複合적이고 獨特한 文化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위구르가 번성하던 시기는 新羅가 三國을 統一한 시대이며, 新羅와의 交易으로 이어진 兩國間 關係는 高麗를 거쳐 朝鮮시대까지 이어졌다.<sup>1)</sup>

따라서, 本 研究의 目的은

첫째, 위구르 服飾이 新羅服飾에 融化되어 가는 過程을 알아보고,

둘째, 위구르服飾과 新羅服飾의 相互比較를 통하여 스키타이계에 源流한 新羅服飾의 흐름을 밝

혀내고자 하며,

세째, 新羅服飾이 그 源流와 區別되는 固有性과 獨創性을 찾아내어, 그동안 中國의 影響이 지나치게 강조되어 왔던 韓國服飾의 系譜를 재조명하는데 있다.

研究範圍는 동투르크스탄위구르가 중국과 同等한 位置로 부상했던 시기이며, 또 新羅가 外來文化的 傳來로 文化的 전성기를 이루었던 6~9세기로 제한하였다. 地域의 制限은 타림분지의 龜茲와 吐魯番으로 하였다.

研究方法으로는,

첫째 服飾의 傳播 및 交流의 경로는 文獻과 考古學的인 實證資料, 先行研究資料를 토대로 研究·調査하였다.

둘째 新羅服飾의 特色을 규명하기 위하여 慶州 地域의 여러 古墳과 龍江洞古墳出土 土偶, 隍城洞 古墳出土 土偶, 그리고 이것들 보다 앞서는 時期의 比較를 위하여 新羅의 遺物이 남아있지 않는

1) 李熙秀(1993),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23쪽

경우는 新羅와 類似한 服飾을 하였던 高句麗古墳 壁畫, 百濟의 遺物 등을 利用하였다.

세계 위구르 服飾의 特色을 규명하기 위하여 龜茲 주변지역은 키질과 콤드라의 石窟壁畫를 중심으로 하고, 吐魯番은 아스타나 古墳出土品, 베제 크릭 石窟壁畫, 무르투크壁畫 그리고 코초 出土品을 중심으로 分析하였다

## II. 위구르帝國의 歷史·文化的 배경

中央아시아는 파미르고원을 분수령으로 하여 東·西투르크스탄으로 나뉜다. 이곳은 대체로 사막지대로 구성되어 있고, 그 사이에 오아시스 도시를 잇는 실크로드가 전개된다. 中央아시아에는 그동안 많은 종족들이 歷史속에 명멸했고, 또 그들은 각기 다른 정주문화와 연결되었기 때문에 자연히 문화의 색깔도 다양해졌다.

中央아시아의 중심종족은 다수의 遊牧民이다. 기원전 8세기경부터 흑해연안에서 발흥하였고, 南러시아의 사카족과 同系로 추정되는 스키타이족, 北이란과 南러시아의 소그드족, 北아시아에서 中國변방을 넘나들며 활동한 흉노족 - 이들의 후예가 東유럽에까지 西行하여 서방에서 일컫는 훈족(Hun)을 형성한다 - 또한 기원후 6세기에 부상하여 唐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발전하여 오늘날까지도 中國 신강성에서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는 위구르족 등을 들 수 있다.

위구르는 오늘날에 維吾爾라 부르나 역사상으로 回紇(또는 回鶻)로 알려져 있다. 貞觀元年(627)에 突厥을 패망시킨 후 回紇汗國을 성립시켰다. 본래 투르크족의 일파인 유목민족으로서 외몽고의 세렝카河畔을 본거지로하여 점차 서쪽으로 이주하면서 세력을 확장하였다. 소그드문화와 접하고 中國의 정주문화를 섭취하여 오아시스 도시 문화를 이룩하였다.

위구르 文明은 다른 中央아시아 족속에 비해 우

수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 佛敎에 관한 위구르語 경전은 漢文, 코탄語, 산스크리트語의 번역이며, 더 나아가서 이것들을 자기 취향과 사상에 맞도록 변화시켰던 것이다.

8세기중엽의 安史의 亂(755)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唐과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어 위구르의 기세는 높아졌다. 마침내 758년 肅宗이 어린딸을 위구르의 葛勒可汗에게 出嫁시켰다. 이처럼 위구르와 唐과의 왕실관계는 돈독하였지만, 漢族에 동화하고 고급문화를 흡수하려는 위구르인들의 적극적인 문화적 자구책에 中國 당국은 제동을 걸기도 하였다.

키르키즈족에 밀려 840년 回鶻汗國은 종식되고, 그 후 위구르족은 그들의 중심지를 西南으로 옮겨 河西, 西州(高昌), 葱嶺西로 三分된다. 타림분지의 吐魯番을 866년에 격퇴시켜 실크로드 교통로를 장악하게 되었고 吐魯番분지를 생존지대로 삼게 되었다. 이 사건으로서 新疆 역사상 새로운 장을 여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일개 遊牧族인 위구르가 이 지역의 歷史的 활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sup>2)</sup>

## III. 新羅 服飾과 위구르 服飾의 關係 比較

### 1. 冠 帽

#### 1) 弁形帽

新羅 弁形帽의 형태는, 帽의 前面에 鳥羽飾을 꽃을 수 있는 裝飾이 붙어 있고 後部에도 裝飾品이 있는 것(高句麗大安里1號墳前室人物圖)이 있다. 또한 前面에 장식을 표현한 것으로 보이는 長方形의 줄무늬에 전체적인 모양은 이등변삼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百濟夫餘出土 瓦面人物像) 등이 있다.<sup>3)</sup>

2) 權寧弼(1991), '中央아시아繪畫', 「실크로드 美術」, 韓國博物館會, 55~56쪽

3) 金文子(1984), '古代韓國服飾의 源流에 관한 研究', 이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5쪽

(1) 白樺樹皮騎馬人物彩畫簷笠

(慶州 天馬塚 155號墳출토, 5~6세기, 國立慶州博物館 所藏)

白樺樹皮板(자작나무껍질)을 扇形으로 오려, 이 扇形板 8매를 잇대어 簷笠의 양태를 구성하고 彩畫 하였다. 內周緣에는 蓮瓣文을 둘러고 각 扇形마다 구획하고 그 8구에 騎馬人物圖를 彩畫하였다. 騎馬人物은 襦袴制로 窄袖肢體形의 服飾을 하였었고, 말의 질주하는 모습은 高句麗古墳壁畫의 狩獵圖 騎馬人物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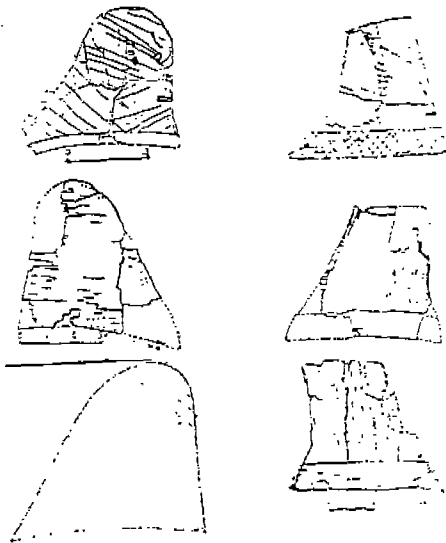
(2) 白樺樹皮瑞鳥圖彩畫簷笠

(慶州 天馬塚 155號墳출토, 5~6세기, 國立慶州博物館 所藏)

表面은 6枚의 扇形板의 內周緣에는 蓮瓣을 둘러고 각 구에는 鳳凰圖, 獸頭鳥身圖 등의 瑞鳥를 朱色鳥로 彩畫하였다. 裏面에는 菱形으로 唐草文이 彩畫되어 있다.<sup>4)</sup>



〈圖 3-2〉 키질제14窟 窟頂右部分  
「中國石窟 克孜爾石窟」, 제4권, 圖48



〈圖 3-1〉 白樺樹皮製弁形帽

(左: 圓頂形, 右: 方頂形)

上: 慶州 飾履塚出土-「慶州 金鈴塚飾履塚」

中: 慶州 金冠塚出土-「慶州의 金冠塚」

下: 慶州 天馬塚出土-「天馬塚」

白樺樹皮製弁形帽(圓頂形, 方頂形) 〈도 3-1〉와 똑같은 것이 노인올라(Noin-Ula)의 匈奴古墳 第6號墳에서 絹製弁形帽가 출토되고 있으므로 신라의 白樺樹皮工藝는 북방계문화의 系譜임을 알 수 있다. 4세기로 추정되는 키질 第14窟 券頂東側壁菱形格本生畫馬壁龍王本生特寫<sup>5)</sup>〈도 3-2〉에서, 龍의 背위에서 있는 商人 帽은, 키질 第17窟 主室 券頂東側壁菱形格本生畫薩薄燃臂當炬本生特寫<sup>6)</sup>와 같이 圓頂形을 하고 있으므로 匈奴古墳에서 이어지는 흐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新羅의 弁形帽은 원래의 형태보다 입체적이며, 新羅人은 圓頂形을 발전시켜 冠帽의 형태에 가까운 方頂形을 개발하였다고 본다.

2) 臺輪式立飾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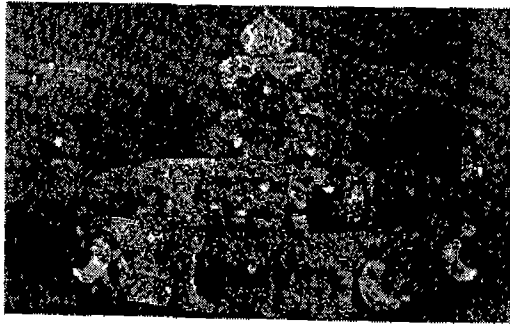
(1) 草花形立飾系金冠

慶北 高靈附近 出土金冠(湖岩美術館 所藏) 〈도 3-3〉은 臺輪위에 草花形立飾 4개를 같은 간격으로 세웠다. 3단의 花枝形은 先端이 下向하여 있고 中段의 花枝形은 매우 짧다. 金冠 전체에 打出點

4) 李殷昌(1991), '新羅의 白樺樹皮騎馬人物彩畫簷笠', 「新羅藝術의 新研究」, 第6輯, 書景文化社, 307~309쪽

5) 新疆維吾爾自治區 編著(1989), 「中國石窟 克孜爾石窟」, 第1권, 文物出版社, 圖4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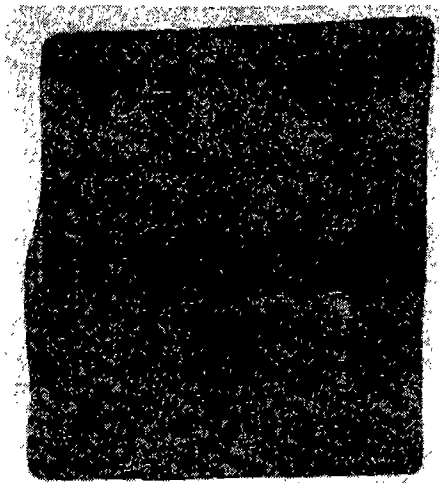
6) 新疆維吾爾自治區 編著(1989), 앞의책, 圖62



〈圖 3-3〉草花形立飾系金冠  
(慶北 高靈附近 出土)  
-「韓國美術全集」2-

線의 文樣이 새겨져 있고 瓔珞이 달려 있다.<sup>7)</sup>

이와같은 형태는 '아름다운 왕녀의 초상화'라는 베제크릭 32굴 벽화 <도 3-4>의 冠에서 볼 수 있다. 金冠 전체의 打出點線의 文樣과 草花形 裝飾의 印식에서 공통점을 발견 할 수 있다. 이는 南露의 알렉산드로노폴(Alexandropol)出土 銀製品과 同一 系譜<sup>8)</sup>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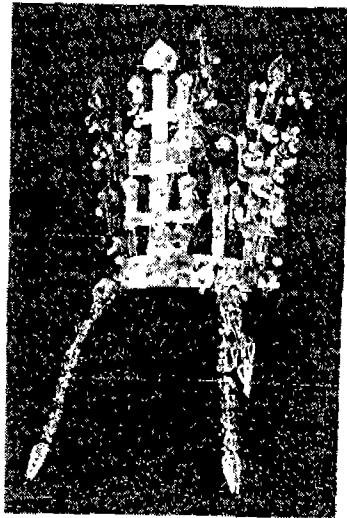


〈圖 3-4〉베제크릭 32굴 벽화, 9세기  
-「실크로드의 美術」, 國立中央博物館, 圖105-

(2) 樹木鹿角形立飾冠

慶州 瑞鳳塚 出土 金冠 <도 3-5>은 山字겹침 3 段式 3個와 鹿角形立飾 2個가 세워져 있다. 2개의 좁은 椽帶로 머리위 中央에서 十字形으로 직교하는 內帽形의 骨格을 만들었고 臺輪 左右에는 1~2 줄의 垂飾을 달고 있다.<sup>9)</sup>

이는 Don江 河口 附近 노보체르카아스크(No-vocherkaask)古墳出土 金冠에서 源流<sup>10)</sup>하며, 특히 山字形 立飾은 사만의 Tay라 불리는 Shaman's cap<sup>11)</sup>에서도 볼 수 있다.



〈圖 3-5〉樹木鹿角形立飾冠  
(慶州 瑞鳳塚 臺土)  
-「韓國美術全集」2-

베제크릭 25굴 回鶻王侯家族群像과 코초 出土 繪幃 위구르 왕자상 <도 3-6>에서 세줄기 가지가 있는 山字의 頂은 立飾冠을 쓴 모습이 있는데, 이 鹿角의 가지 끝이 寶珠形을 하고 있는 모양이 新羅·가야 古墳 出土 金冠類의 형태와 공통된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이 왕자가 입을 盤領袍에는 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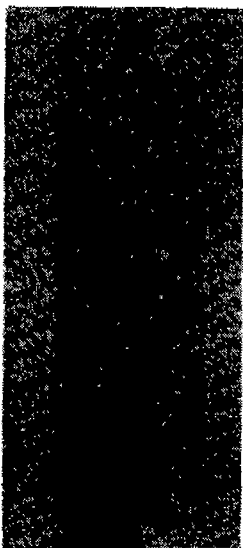
7) 金文子(1984), 앞의글, 48쪽

8) 李殷昌(1991), '樹形立華飾 黃金寶冠', 「新羅藝術의 新研究」第6輯, 書景文化社, 278쪽

9) 金文子(1984), 앞의글, 52쪽

10) 李殷昌(1991), '樹形立華飾 黃金寶冠', 書景文化社, 278쪽

11) 金文子(1984), 앞의글, 53쪽



〈圖 3-6〉코초 출토 繪幃 위구르 왕자상  
-「실크로드의 美術」, 國立中央博物館, 圖 131-



〈圖 3-7〉隍城洞出土 銅體部分 I  
-「新羅의 土俑」-

산왕조의 문양인 雙鳥文이 있고, 幃身 뒷면에는 페르시아 계통의 蓮珠文이 묘사되어 있다. 이 雙鳥文의 양식은 慶州 附近 出土로 慶州博物館 所藏 '立樹雙鳥文及獅子文石'과 統一新羅의 숫막새 기와의 立樹雙鳥文·암막새의 立樹雙獸文 등, 그 유례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新羅의 立樹雙鳥文과 立樹雙獸文은 서역계문화요소라 하겠다.<sup>12)</sup> 따라서 서역계문화요소인 蓮珠文은 新羅에서 '立樹雙鳥文'의 형태로 瓦當과 博에 簡略化·省略化·抽象化되어 표현되고 있다.

## 2. 男子服飾

### 1) 表衣(袍)

新羅의 袍는 骨品階級이 闊袖形이었고, 平民階級은 窄袖形 이었다<sup>13)</sup>고 한다.

#### (1) 隍城洞出土 銅體部分 I〈도 3-7〉

頭部가 파손되어 冠帽 및 얼굴 모습은 알 수 없으나, 종아리까지오는 길이에 약간 廣袖로 옆트임

이 있는 盤領袍이며 靴가 보인다. 한쪽 소매는 걷어 올리고 있으며, 속에 폭 좁은 上衣(窄袖肢體形)가 보인다. 소매와 裳 部位에 굵고 가는 線으로 씨 주름을 나타낸다.<sup>14)</sup>



〈圖 3-8〉아스타나 206號墓 胡人俑

12) 李殷昌(1991), '新羅의 金銅飾履', 「新羅藝術의 新研究」第6輯, 書景文化社, 297~299쪽

13) 柳喜卿(1993), 「韓國服飾文化史」, 敎文社, 69쪽

14) 具仁淑(1989), '隍城洞古墳出土 土俑의 服飾研究', 이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7쪽

이와같은 형태는 아스타나 216號墓 出土 加彩俑과, 아스타나 206號墓 出土 胡人俑 <도 3-8>에서 보인다. 당시 실크로드를 오가며 활발한 상업활동을 벌이던 소그드 商人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며<sup>15)</sup>, 服飾은 弁形帽을 쓰고, 左側에 트임이 있는 무릎길이의 翻領袍를 입고 長靴를 신었다. 한 쪽만 젖혀진 單翻領으로 그 방향을 보면 右衽이며 젖혀진 부분을 여미면 整領이 될 것이다.<sup>16)</sup>

(2) 慶州 龍江洞古墳 文官俑 <도 3-9>

廣袖의 右衽으로서 襪이 여밈을 따라 있는 團領袍이며 허리보다 내려간 곳에 帶를 매었다. 團領袍의 길이는 발등에 닿고 옆트임은 보이지 않는다.<sup>17)</sup>



<圖 3-9> 慶州 龍江洞古墳 出土 文官  
-「新羅의 土俑」-

이는 베제크릭 32굴 沙利家族人像과 龜茲의 梁職貢圖 龜茲國使 <도 3-10>와 같은 양식이다. 服飾은 團領에 소매가 넓고 길며, 右衽으로 襪이 여밈을 따라 이어졌으며 허리보다 내려간 곳에 帶를 매었다.



<圖 3-10> 梁職貢圖 龜茲國使

2) 下衣(袴)

(1) 窮袴

王宇清은 中國의 袴에 대해, “원래 漢人은 앞·뒤가 터진 開襟袴를 입는 것이 상례이고, 앞·뒤가 막힌 窮袴를 입는 것은 예외에 속하는 일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前漢書』 孝昭上官皇后傳 注에는 「... 窮袴는 앞·뒤에 襟이 있는 것을 말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窮袴를 착용한 모습은 高句麗 舞踏塚 主室 北壁 接見圖 侍從男과 廚房圖의 女侍從이 착용한 袴를 보면, 幅이 좁고 뒤가 삐죽 나온 것이 있는데 이를 보아 襟附着의 형태라 하겠다.<sup>18)</sup>

신라에서는 龍江洞 出土 男子像 III과 隍城洞古墳 出土 胴體部分 <도 3-7> 등에서, 幅이 좁은 窮袴의 形態를 볼 수 있다.

이는 키질 第14窟券頂西側壁菱形格本生畫馬王本生特寫<sup>19)</sup>의 商人服飾과 4세기로 추정되는 키질 第

15) 金素賢(1994), '唐時代의 胡服에 관한 研究', 이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76쪽  
 16) 李玉冕(1990), '唐代 男子服飾에 관한 研究', 성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6쪽  
 17) 李玉冕(1990), 앞의글, 102쪽  
 18) 金文子(1984), 앞의글, 84쪽  
 19) 新疆維吾爾自治區 編者(1989), 앞의책, 圖 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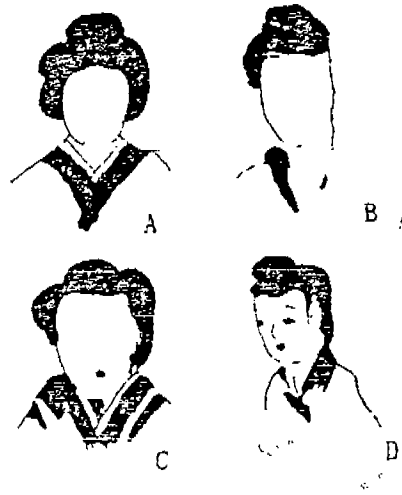
14窟券頂東側壁菱形格本生畫馬壁龍王本生特寫<sup>20)</sup>

〈도 3-2〉 등, 窮袴의 착장형태는 다수의 유례를 볼 수 있다. 窄袖細身에 엉덩이 길이인 長襦 그리고 窮袴의 모습이 高句麗 舞踊塚 主室 北壁 接見圖 侍從男과 廚房圖의 女侍從의 服飾과 흡사함을 볼 수 있다.

(2) 寬袴

寬袴는 外觀이 직선적이고 여유가 있는 형태로 서, 中國式 袴와 같이 아래단으로 갈 수록 넓어지는 사다리꼴 모양을 이룬 것과는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高句麗 雙楹塚 騎馬人物圖와 舞踊塚 主室 北壁 接見圖의 男子像이 착용한 바지와 8세기경의 外國使節圖 章懷太子墓의 新羅人이 착용한 것은 우리의 寬袴形態이다. 이같은 寬袴의 모습은 스키타이의 黃金人物像이나 B, C, 5세기경의 Solokha 古墳出土 壺에 그려진 騎馬人에서도 볼 수 있으므로, 그 源流는 스키타이제라 하겠다.<sup>21)</sup>

龜茲의 梁職貢圖 龜茲國使〈도 3-10〉에서의 寬袴로 보아 그 흐름을 알 수 있다.



〈圖 3-11〉 얽은머리  
A: 安岳2號墳, B: 狩獵塚  
C: 雙楹塚, D: 舞踊塚

3. 女子服飾

1) 髮形

「北史」東夷傳에는 新羅 髮制에 關하여, 「... 辨하여 머리에 돌렸다...」하였으므로, 이는 高句麗의 「얽은머리」〈도 3-11〉와 흡사한 형태라고 하겠다. [太平御覽] 西夷部 東夷 新羅條에, 新羅는 美髮이 많고 긴 머리가 유행하였다고 한다. 이로써 髻(髢)의 要求가 생겼고, 또한 新羅의 名物로써 外國輸出에 이르게 되었다고 한다.<sup>22)</sup>

龍江洞 古墳 出土 土偶 女子像들 〈도 3-12〉의 頭飾은 양쪽 귀 윗부분에 角지는 형태로서, 많은 양의 머리를 뒤로 돌아가며 두르고 있으며 정수리 중앙에 머리를 맺고 있다. 여기서 身分에 따른 머



〈圖 3-12〉 龍江洞 古墳 出土 土偶 女子像들  
—「新羅의 土俑」—

리 形態의 差異가 確實히 보이는데, 작은 크기의 土偶들 보다 크기가 크고 彩色의 흔적을 보이는 土偶는 角이 돌출 되어 귀족신분임을 추정 할 수 있다.<sup>23)</sup>

20) 新疆維吾爾自治區 編纂(1989), 앞의책, 圖48

21) 金文子(1984), 앞의글, 86쪽

22) 崔燕京(1992), '新羅土偶에 나타난 服飾研究', 성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6~47쪽

23) 崔燕京(1992), 앞의글, 45~46쪽

高昌國은 「北史」, 「周書」, 「隋書」에, “婦人은 틀 머리위에 만들었으며 男子는 胡服을 입었다.”고 하였으니, 髻는 辮髻를 얹은 것이다. 「新五代史」에는 “男子는 被髮이고 女子는 總髻로 髻가 5~6寸인 髻를 만든다.”고 하였으며, 王延德의 [高昌行記]는 공들여 빚은 髻와 鬢, 비녀에 관해 전해지고 있다. 또한 「松漢紀聞」 回鶻條에는, “王의 婦人이 髻가 5~6寸의 髻인 髻를 묶고 髮飾을 하였다.”고 하여 天山 위구르 王國에 대해서 잘 알려지고 있다.<sup>24)</sup> 또한 唐 天寶年間 아스타나 187號 墓 出土 絹本繪圖 圍棋仕女圖와 아스타나 216號 墓 出土 木俑 <도 3-13>에서 雙髻와 高髻에 裝飾한 것, 그리고 많은 量의 머리로 角이 지게 빚은 모양을 볼 수 있다. 따라서 新羅의 髮形은 그들과 비교해 볼 때, 誇張됨이 없이 簡略히 나타남을 알 수 있다.



<圖 3-13> 아스타나 216號墓 出土 木

2) 袂 · 襦 · 裙

興德王 服飾禁制에서 보면, 短衣 · 袴 · 內裳 · 袂 · 內衣 · 半臂 등에 시공되는 刺繡와, 袴 · 內裳

· 表裳 · 袂 등에 사용되는 金銀泥를 금지한 조항도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新羅의 服飾에는 刺繡에 金銀泥를 사용하였을 뿐 아니라 刺繡를 놓고, 다시 金銀泥를 하고 있어 그 色彩가 얼마나 화려 하였나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sup>25)</sup>

新羅 女子服飾은 襦裳制와 襦裙制로 區分된다. “裳”은 襟 子락이 짧고 幅이 좁은 것이라 하겠고, “裙”은 子락이 발등을 덮을 정도로 길며 幅도 넓은 것이라 하겠다.<sup>26)</sup>

龍江洞 古墳 出土 女子像들 <도 3-12>에서 보면, 襦裙의 양식이고 廣袖이며, 좁은 袂가 둘러져 있다. 裙의 밑으로는 신발코가 위를 향해 올라와 있고, 전반적으로 衣服에 赤色계통으로 着色되었던 흔적이 있다. 裙은 襦위에 착용하고 裙 위에 帶를 매어 앞으로 길게 늘어뜨렸다.<sup>27)</sup>

이와같은 양식은 아스타나 出土 樹下美人圖 (716년)와 아스타나 216號 墓 出土 木俑 <도 3-13>에서 볼 수 있다. 소매는 窄하고, 長裙이



<圖 3-14> 隱城洞 出土 女子像  
-「新羅의 土俑」-

24) 金容文(1994), ‘中央아시아의 修髮樣式과 頭衣’, 「韓國服飾」 12호, 檀大出版部, 72~74쪽

25) 朴春玉(1989), ‘袂에 관한 研究’, 국립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48쪽

26) 李殷昌(1991), ‘新羅土偶에 나타난 民俗’, 「新羅民俗의 新研究」, 第4輯, 香泉文化社, 218쪽

27) 朴春玉(1989), 앞의글, 53쪽



땅에 끌리는 豐滿한 실루엣이며, 高髻에 花鈕을 꽃고 襦위로 裙을 높이 치켜 입고 帔를 들었다.

隍城洞 出土 女子像 <도 3-14>의 服飾은 團領의 窄袖細身으로 허리에 帶를 매고 있다. 신발은 長裙에 가려서 작고 뾰족한 履의 코만 보인다.<sup>28)</sup>

아스타나 230號墓 出土 絹本繪畫(702년)와 아스타나 中期 古墳 206號墓 木俑<도 3-15>의 服飾에서 같은 양식이 보인다. 머리형은 雙髻에 窄袖의 녹색상의와 붉은색과 노란색 줄무늬의 長裙을 입었다.<sup>29)</sup> 허리에는 錦으로 된 帶를 맏는데, 蓮珠 文안에 宝相華文을 施行하고 있으며, 帔에는 絞染을 한 紅羅이다. 顔面의 이마와 볼에 花鈕을 그렸다.<sup>30)</sup>



<圖 3-15> 아스타나 206號墓 出土 土俑  
-「中華五千年文物集刊」, 服飾篇 下, No.179-

#### 4. 裝身具

##### 1) 耳飾

新羅의 耳飾은 다양한 形式을 지니고 있다. 첫째 耳飾의 始源形態로서 1개의 環으로 이루어진

素環式耳飾이고, 둘째 細環에 小環 1개를 連結한 간단한 것으로 新羅에서는 드물게 보이는 형식이며, 셋째 垂飾附耳飾으로 耳環部·中間飾·垂下飾의 세부분으로 구성되어 新羅耳飾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다. 耳飾의 素材는 金·銀·金銅 등이나 金製가 가장 많이 남아 있다. 耳環部의 형태는, 太環과 細環의 2개로 된 것, 太環·細環·小環으로 된 것 그리고 細環 1개로 된 것도 있다. 垂下飾의 형태에는 ① 길이가 긴 心葉形 1枚의 것, ② 옆으로 긴 心葉形의 것, ③ 1枚의 大形心葉形의 앞뒤에 각각 1枚의 小形心葉形을 달아 맨 것, ④ 三角錐形의 것, ⑤ 金板을 가늘게 오려 꼬아 만든 것 등이 있다.<sup>31)</sup>

##### (1) 金製耳飾 <도 3-16 左>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출토지 미상의 新羅 金製耳飾으로 小圓形 에 두개의 垂飾을 달았다. 하나는 瓢形裝飾이고, 또 하나는 四花形의 正六面體를 상하 2층으로 구성하였다.

##### (2) 金製細環式耳飾 <도 3-16 右>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 慶州 金鈴塚 出土)

新羅의 金製細環式耳飾 <도 3-16 右>은 細環式 母環에 두개의 細環式子環이 있고, 거기에 각각 垂飾을 달았다. 하나는 心葉形垂飾가 垂下되어 있고, 또 하나는 金帽가 석워진 硬玉製 曲玉으로 된



<圖 3-16> 金製細環式耳飾

(左: 出土地 未詳, 右: 金鈴塚 出土)

-「韓國美術全集」2-

28) 具仁淑(1989), 앞의글, 19쪽

29) 中華五千年文物集刊 編輯委員會, 「中華五千年文物集刊」, 服飾篇 下, 中華民國75년9월初版, No. 179

30) 具仁淑(1989), 앞의글, 119쪽

31) 金基雄(1991), 「新羅의 金屬工藝」, 「新羅藝術의 新研究」第6輯, 書景文化社, 200~202쪽

垂寶가 垂下되어 있다.<sup>32)</sup> 이와같이 心葉形垂飾의 金製耳飾은, 細環에 鎖로 연결된 心葉形垂飾의 金製耳飾(Parthian 王國(B.C. 250~A.D. 26)의 基蘭州 出土 金製耳飾)을 그 원류로 본다.<sup>33)</sup>

이러한 耳飾은 基蘭州 出土 벽화의 持劍人物像(A.D. 500년경)과 소르축 출토 벽화의 女供養者는 太環式耳飾의 착용에서 볼 수 있다. 또한 9세기의 베제크릭 32굴 벽화의 ‘아름다운 왕녀의 초상화’ <도 3-4>에서 金裝細環式耳飾의 형태로서 <도 3-16 右> 金製細環式耳飾과 그 구성이 같게 나타난다. 그런데 垂飾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新羅인이 중복되는 것을 簡略히하고, 應用하여 새로운 미를 創造한 것이라 하겠다.

2) 頸 飾

(1) 金鎖曲玉裝頸飾 <도 3-17>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皇南大塚 98號墓 출토)

길이는 33.2cm, 曲玉長 2.5cm의 純金製로서 數重으로 정교하게 鑲 金 사슬 중앙에 金製 中空의



<圖 3-17> 金鎖曲玉裝頸飾  
(皇南大塚 98號墓 出土)

曲玉을 달고, 이 曲玉을 중심으로 좌우에 金製 中空玉을 같은 간격으로 3개씩 달았다.

이와같은 金裝工·鑲金工·金鎖工 등 金屬工藝도, 아프가니스탄의 시바르간에서 출토된 黃金 펜던트와 스키타이 크림리아 반도의 크리오바 古墳 출토 黃金펜던트 <도 3-18>의 영향이라 하겠다.<sup>34)</sup>

위의 분석내용은 <표 1>에 요약, 정리 하였다.



<圖 3-18> 黃金펜던트  
(스키타이 크림리아半島 크리오바 古墳 出土)

IV. 結 論

新羅와 위구르의 服飾을 比較분석한 결과<표 1>, 新羅服飾은 騎馬人의 服飾制度가 主流로 됨을 알 수 있었다. 新羅人은 北方 시베리아 草原지대 에서 말을 타고 狩獵을 생활수단으로하던 地方遊牧民族인 騎馬民族의 系로, 이 원류는 북방계문화 요소이며, 이는 다시 東 투르키스탄 위구르에 전해 졌던 것이다. 많은 金과 鐵을 보유하고, 금제품과 鐵製具를 많이 생산하며 상당한 富의 능력을

32) 李殷昌(1991), ‘新羅의 金製細環耳飾과 金鎖曲玉裝頸飾’, 『新羅藝術의 新研究』, 第6輯, 書景文化社, 299~302 쪽

33) 金文子(1984), 앞의글, 107쪽

34) 李殷昌(1991), 바로앞글, 302~303쪽

〈표 1〉 新羅服飾과 위구르服飾의 比較 및 정리

區 分		新 羅	위 구 르	공통요소	발전요소	
冠帽	弁形帽	· 白樺樹皮騎馬人物彩畫簷笠 (慶州天馬塚155號墓出土) · 白樺樹皮瑞鳥圖彩畫簷笠 (慶州天馬塚155號墓出土) · 白樺樹皮製弁形帽<도3-1> (上:飾履塚,中:金冠塚,下:天馬塚)	· 키질 第14窟 券頂東 側壁菱形格本生畫馬壁 龍王本生特寫<도3-2> · 키질 第17窟 主室券 頂東側壁菱形格本生畫 薩薄燃臂當炬本生特寫	· 이동변삼각형을 이루는외관 · 圓頂形 · 蓮珠文	· 일반 冠帽의 형 에 가까운 方頂形	
	臺輪式 立飾冠	· 草花形立飾系金冠<도3-3> (慶北高靈附近出土金冠)  · 樹木鹿角形立飾冠<도3-5> (慶州瑞鳳塚出土金冠)	· 베제크릭 32窟 벽화 <도3-4>  · 베제크릭 25窟 回 王候家族群像 · 코초 出土 繪幡 위구르왕자상<도3-6>	· 打出點線의 文樣 · 草花裝飾의 立飾  · 山字形의 立飾 · 鹿角 가지끝의 寶 珠形	· 섬세한 金工藝 技術의 발달로 보 다 장식성이 강하 게 나타남	
男子 服飾	表衣(袍)	· 隍城洞出土 胴體部分 I<도3-7>	· 아스타나216號墓出 土 加彩俑 · 아스타나206號墓出 土 胡人俑<도3-8>	· 整領에 무릎길이 인窄袖肢體形	· 襖보다 조금 여 유 있는 袍形 · 활동에 편리한 옆트임	
		· 龍江洞 古墳 出土 文官俑 <도3-9>	· 베제크릭 32窟 沙利家族人像 · 龜茲의 梁職貢圖 龜茲國使<도3-10>	· 廣袖 圓領袍에 목 폴레, 여밈단, 밑단 소매 끝부분의 襪처 리		
	下衣	綳袴	· 龍江洞 古墳 出土 男子像 III · 隍城洞出土 胴體部分 I<도3-7>	· 키질 第14窟 券頂東 側壁菱形格本生畫馬壁 龍王本生特寫<도3-2> · 키질 第17窟 主室券 頂東側壁菱形格本生畫 薩薄燃臂當炬本生特寫	· 窄袖肢體形	· 窄袖 袴制에 袍 形을 도입
	寬袴	· 外國使節圖 寧懷太子墓의 新羅 人(8세기경)	· 龜茲의 梁職貢圖 龜茲國使<도3-10>	· 寬袴形	· 寬袴形에 襪을 바지단에도 도입	
女子 服飾	髮形	· 龍江洞 古墳 出土 女子像들 <도3-12>	· 아스타나187號墓 出土 絹本繪畫 圍棋仕女圖 · 아스타나216號墓 出土 木俑<도3-13>	· 많은 양의 머리 로 귀윗부분에서 脚 이 지게 밧은 모양	· 과장됨 없이 簡 略히 변화시킴	
	袂· 襖· 裙	· 龍江洞 古墳 出土 女子像들 <도3-12>	· 아스타나 出土 樹下美人圖(716년) · 아스타나216號墓 出土 木俑<도3-13>	· 襖裙, 廣袖, 袂衣 의  착용(廣袖豐滿 形)	· 보다 활동에 편 리하도록 좁은 袂 로 변화	
		· 隍城洞 出土 女子像<도3-14>	· 아스타나230號墓 出土 絹本繪畫(720년) · 아스타나 中期 古墳 206號墓 木俑<도3-15>	· 圓領의 窄袖肢體 形		
裝身具	耳飾	· 金製細環式耳飾<도3-16 右> (慶州金鈴塚出土)	· 베제크릭 32窟 벽화 <도3-4>	· 細環式母鑲에 두 개의 細環式子鑲 (心葉形垂飾)이 있 음	· 두개의 細環式 子鑲에 같은 모양 의 중복을 피하고 다른요소를 응용	
	頸飾	· 金鎖曲玉裝頸飾<도3-17>			· 스키타이 크리 오바 古墳 出土 黃 金 펜던트<도3- 18>에 원류하는 것 으로, 新羅에서는 보다 單純化되어 나타남	

가졌던 新羅는 中央아시아 국가와 交易하면서, 알타이어족 중에서 가장 문명화 된 東투르키스탄 위그르 服飾의 영향을 받아<sup>35)</sup> 獨自的이고 創造的인 異質문화를 형성하는 주체성이 있었던 것이다.

新羅人들은 外來의인 服飾文化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자기방식대로 變形하여 새롭게 창조해 내는 獨創性을 보이고 있다. 즉, 新羅人들은 다시금 簡略化·省略化의 형태로 再創造하고, 자연주의에 바탕을 둔 북방적 기질인 抽象화의 경향을 나타냈다.

‘根源’의 문제는 服飾文化의 본질을 밝히는 첫 번째 작업이며, 이 ‘根源’이 설명되어야 거기서 파생된 것들이 存在의 意味를 갖게되는 것이다. 즉, 源流와 區別되는 固有性과 獨創性은 이 根源의 설명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源流를 밝히는 作業이 세밀 할 수록 독창성에 대한 소득이 클 것이다.

따라서 服飾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은 우리 복식의 源流와 系譜를 잘 인식하고, 선조들이 이룩한 ‘우리 문화’에 바탕을 둔 독창적인 ‘우리 服飾’을 만들어야 하겠다. 세계무대에서도 ‘우리’만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잘 활용한다면, 비로소 “뿌리있는” 디자인으로 인정받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李熙秀(1993), 「터키사」,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무함마드 간수(1992), 「新羅·西域交流史」, 단국대학교 출판부
- 權寧弼(1991), 「中央아시아繪畫」, 「실크로드 美術」, 韓國博物館會
- 柳喜卿(1993), 「韓國服飾文化史」, 敎文社
- 金元龍(1973), 「韓國美術全集」2, 同和出版公社
- 新疆維吾爾自治區 編著(1989), 「中國石窟 克孜爾石窟」, 제1권, 文物出版社
- 中華五千年文物集刊 編輯委員會, 「中華五千年文物集刊」, 服飾篇 下, 中華民國75년9월初版
- 李殷昌(1991), 「新羅의 白樺樹皮騎馬人物彩畫笠」, 「新羅藝術의 新研究」第6輯, 書景文化社
- \_\_\_\_\_(1991), 「樹形立華飾 黃金寶冠」, 「新羅藝術의 新研究」第6輯, 書景文化社,
- \_\_\_\_\_(1991), 「新羅의 金銅飾履」, 「新羅藝術의 新研究」, 第6輯, 書景文化社
- \_\_\_\_\_(1991), 「新羅土偶에 나타난 民俗」, 「新羅民俗의 新研究」, 第4輯, 書景文化社
- \_\_\_\_\_(1991), 「新羅의 金製細環耳飾과 金鎖曲玉裝頸飾」, 「新羅藝術의 新研究」第6輯, 書景文化社
- 金基雄(1991), 「新羅의 金屬工藝」, 「新羅藝術의 新研究」第6輯, 書景文化社
- 金容文(1994), 「中央아시아의 修髮樣式과 頭衣」, 「韓國服飾」12호, 檀大 出版部
- 金文子(1984), 「古代韓國服飾의 源流에 관한 研究」, 이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具仁淑(1989), 「隍城洞古墳出土 土俑의 服飾研究」, 이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金素賢(1994), 「唐時代의 胡服에 관한 研究」, 이대대학원박사학위논문
- 李玉曼(1990), 「唐代 男子服飾에 관한 研究」, 성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崔燕京(1992), 「新羅土偶에 나타난 服飾研究」, 성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朴春玉(1989), 「袿에 관한 研究」, 국민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35) 무함마드 간수(1992), 「新羅·西域交流史」, 단국대학교 출판부, 209~529쪽

## ABSTRACT

### The Comparative Study of Costume and Ornaments between Shilla and Uighur

Han, Youn Sook

This thesis focuses on the study of costume and ornaments of Shilla which had been severely affected by Uighur, and those of Uighur in Uighur self-governing district located in Shin Kang, East Turkestan, in Central Asia.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way of integration of Uighur's costume and ornaments into Shilla, and origins of Shilla's costume and ornaments which had a mix of international elements through cross exchanges, by comparing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and at the same time to clarify the pedigree of Korean costume and ornaments which are said to be under a severe Chinese influence, by highlighting its uniqueness and originality.

The result of the study demonstrates and originality of Shilla by melting foreign cultures into its own style in the process of accepting them. This means that the Shilla has recreated them in the form of simplification, and added naturalistic abstractness which is an element of Northern culture. The costume and ornaments are divided into coronets men's costume, women's costume, and accessories

#### 1. Coronets

A horse-riding man, and the costume type of 襦袴制 窄袖肢體形 tell the Northern culture's influence on 白樺樹皮騎馬人物彩畫簷笠 and patterns of a lotus flower and arabesque show the 白樺樹皮騎馬人物彩畫簷笠 has an influence

of Buddhism with culture of bordering countries of Western China. The origin of 白樺樹皮製弁形帽(圓頂形, 方頂形) lies in Northern cultures which can be found in ancient tombs of the Huns in Noin-Ula, and stone caves of Kizil in Kochang.

The wall paintings in Alexandropol, Murutuk and 墩煌 No. 409 cave show that 草花形立飾系金冠 is under the influence of Northern culture, and Bezekrick No.25 cave and 繪幡 in Kocho also show that 樹木鹿角形立飾冠 is under the influence of Northern culture, with its origin in Novocherkaask.

In this regard, the transformed coronets of Shilla has shows a blended culture of Shilla with Northern, Chinese, and Western cultures.

#### 2. Men's Costume

盤領袍 derives from cultures of bordering countries of Western China centering around Uighur and Turkey. 蓮珠文 in Uighur prince's costume and in Uighur paintings of Central Asia were reflected into the arts of Shilla in a direct way, and the motive of Uighur was deviatedly expressed at Shilla's arts in the form of simplicity, and naturalistic abstract paintings as is shown at 立樹雙鳥文 in tiles and brick.

Along with this, 窄袖肢體形 costume originates from Eurasia's Northern horse-riding costumes as was shown in a golden man in B.C. 4-5C which is now possessed by Kazakstan Republic Academy Archeology Center Museum, and a golden figure from Skitai ancient caves, and the origin is carried away into wall paintings of Kizil No.14 cave in 8c and Astana's early period ancient tomb No. 6.

#### 3. Women's Costume

The hair styles of Shilla people are either 辮

髮 or up-style with a lot of hair around it whose origin can be seen in Astana No.216 and No.187 caves of Kochang and Uighur's wall paintings of royal princess's hair style.

Astana's middle period No.206 and no.230 tombs reveal the its origin of 窄袖長裙 while Astana early period No.6 tomb shows that of 廣袖豐滿形.

#### 4. Accessories

The earrings with small golden beads is seen at earrings of figure holding a sword in wall paintings of Kizil in about 5c, and those of a offering people in Sorchuk wall paintings.

The earrings with small golden beads originates from a golden pendant of Shivargan, Afganistan, and golden pendants and other golden and metal accessories from Chrioba ancient tombs in Skitai Critia peninsula.

Shilla's costume derives from the costume

style of horse-riding man, which proves the fact that Shilla people are horse-riding people with excellent horse-riding techniques, and traditions. The people of Shilla are from horse-riding people of local mounted momads in Northern part of Siberia steppe and this origin of Northern culture had been carried into Uighur in East Turkestan. At the same time, Shilla had a wealth and power since it was rich in gold and iron, thus producing lots of materials made of them. The result of this study emphasizes Shilla's identity and self-control by creating an independent and innovative heterogeneous culture since Shilla's active exchanges with East Asia allowed it to accept the most civilized Uighur culture in East Turkestan among Altai language which had frequent cross contacts with India and Europe.